

“그때, 철거민 천막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 회년사회 목회신학위원 박창수 목사 ‘현장에서 겪은 바알토지제도의 모습’

대한민국은 바알의 나라이다.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의 토지제도를 실행하는 나라이다. 바알은 무엇이며, 바알의 토지제도는 무엇인가? 바알은 풍요의 신이며 바알의 토지제도는 대토지소유제이다. 돈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한국사회는 부자되기를 열망하면서 크고 비싼 땅(부동산)을 탐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풍요의 신을 숭배하면서 건물주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신자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있다. 엘리야를 비롯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바알 숭배와 바알의 토지제도에 맞서 여호와 신앙과 회년의 토지평등권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애언 사역을 했다.

‘나뭇의 포도원’ 사건(열왕기상 21장)은 시돈의 왕이자 바알 숭배자인 옛바알(바알과 함께)라는

똥)의 딸 이세벨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결혼하고 바알 숭배와 바알의 토지제도를 이스라엘에 전면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회년 토지법을 지키려 한 외인 나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아합에게 무서운 심판을 예언했다.

그럼 이처럼 선지자들이 맞서 싸운 바알의 토지제도가 어떻게 한국에서 실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는가?

이번에는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현장에서 겪었던, 그리고 마음 깊이 남아있는 체험을 독자 여러분들과 나누려 한다. 미션리 창간 26주년 특집으로, 두 차례 게재한다.

/박창수 본지 편집위원(목사, 기독교학 박사, 회년사회 목회신학위원)



내가 철거민을 처음으로 직접 만난 것은 지난 1997년 겨울이었다.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 내가 몸담았던 대학생 선교단체인 새벽이슬에서 기도회가 있었다. ‘성탄절을 맞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를 논의하며 기도했다. 한 자매가 TV에서 본 한양대학교 인근의 행당동 철거민 마을을 이야기했다. 철거민들이 굴삭기로 집을 부수고, 저항하는 마을 주민들을 내동댕이치는 등 충격적인 강제철거 과정이 방영된 마을이었다.

처음 찾아갔을 때 그리스도인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은 예배를 못 드린 지 오래되었다고 하시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는데 언제 철거민들이 들어닥칠지 몰라 울타리 밖 교회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 6개월간 마을의 집회장으로 쓰이던 군용 천막 안에서 일요일마다 저녁 예배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드리게 되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김수환 추기경이 그 철거민 마을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 한 시간 전쯤 철거 용역 소장이 와서 행패를 부렸다. 그 소장을 보자 한

할머니가 거칠게 “가라!”고 외쳤다. 순식간에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소장이 천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려 하였다. 그러자 소장이 자기 어머니를

그 소장이 일전에 와서 철거민들을 협박하면서 사용한 길고 날카로운 회칼이었다. 그 철거 용역 회사가 바로 당시에 강판들을 동원한 폭력 철거로 가

은, 땅을 가진 자들이 재개발 조합을 결성해서, 땅 없는 세입자 서민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 땅에 고층 아파트를 세워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

그 마을의 한 아저씨가 내게, ‘있는 놈들(조합, 지주)이 ‘없는 놈들’(철거민, 강판)을 시켜서 ‘없는 사람들’(철거민, 세입자)을 쫓아내려 한다고

1997년 한양대학교 인근 행당동 철거민 마을의 강제철거 과정 철거반원들이 굴삭기로 집을 부수고 저항하는 주민들 내동댕이 용역강판들이 부모님뻘 어르신들에게 회칼 들고 위협하고 폭행

현장 지키느라 마을 밖 교회에 가지 못하는 주민들 위해 천막예배 드려
그때 그 농성 천막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히 깨달아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년(禧年)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되는 그 할머니를 열차기로 강하게 걸 어차고 그 할머니는 나뭇굴었다. 소장이 큰 소리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돌아간 다음, 한 분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장 악명이 높았던 ‘적준’이었는데, 그 후에 SBS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적이 있다. 이 마을에서 철거민이 발생한 원인

으려는 탐욕 때문이었다. 그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금만 세입자 서민들에게 양보했다면 이런 참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했다. 그 마을의 아저씨들은 철거반원들에게 두들겨 맞아, 그중에는 갈비뼈가 부러진 분들도 계셨고, 아주머니, 할머니

나들도 임시로 만든 비닐집에서 오래 지내시다가 한기(寒氣) 때문에 몸이 상한 상태였다.

연세가 80세 정도 되신, 그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신앙이 깊은 분이셨다. 그 아드님은 철거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이셨고, 연세가 60세 가까이 되셨다.

할머니가 우리를 좋아하셔서 비닐집으로 몇 번 찾아왔었는데, 아드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걱정하시곤 했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비닐집안으로 외풍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할머니가 이런 곳에서 견디실까 걱정스러웠다. 건강을 여쭙어보았더니, 외풍 때문에 추워서 온몸이 아프다고 하셨다.

그래서 아는 한의사 선배에게 마을 주민들을 위해 한방 진료를 토요일마다 해 줄 수 있는지 부탁드렸다. 그 선배는 기쁨으로 해 주었다.

마을 어르신들과 할머니, 아주머니들은 정말 기뻐하셨다. 그 선배는 침을 놓고 진료를 하며 주민들과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다가 간간히 예수님을 전하셨다.

마을에서 예배드리던 군용 천막은 백열전구 하나가 있었고, 너무장작으로 불을 때는 난로가 한기운데, 그리고 군대 내부처럼 출입구 좌우로 높은 평상이 있었다. 그곳에서 이분들을 위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강하고 충만하게 임하셨다. 많은 집회에 참석하였지만 이 천막에서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임하신 경험은 드물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목적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년(禧年)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말씀(누가복음 4:18-19)이 가슴 깊이 다가왔다.



광주양림교회(합동) 회년 사경회에 강사로 초청되어, 사경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뒷줄 가운데가 박창수 목사.



지난해 6월 광주선교 120주년을 맞아 세워새코리아가 주최한 ‘광주다들&다들’ 지역축제에서 회년 강의를 하고 있는 박창수 목사.

교회창립 : 1979. 10. 21

미션리 창간26주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

■ 광주벰엘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로목사 / 손성현 위임목사 / 리종빈
- 부목사 / 이경민 황대성 김윤정 신태호 서정주 권오택 문병주 이창열 손광혁
- 교육목사 / 박성자 전도사 / 김한나 이은혜 김정림 백상화
- 원로장로 / 정대조 손진홍 양승일 김용운 고광호 이준원
- 은퇴장로 / 김용이 장재길 최승영 신방민 임석규 이학림 손양섭 이종국 박성모 지병철 장성강 박길남 김민환 김동곤 정희락 송계영 박도훈 신용식 윤관 김재철 손창위 오용중 조규태 김영관 정덕만 이경범 최동호 양승중 송훈오 장신 한영환 김갑삼 장일규 박용석 우영중
- 시무장로 / 문정수 박현주 신채휴 박상현 유영석 정용중 송용성 안호현 이찬우 정희수 정민섭 김태성 이종호 백종수 고송희



원로목사 손성현 위임목사 리종빈

■ 예배시간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인	1부 오전 7:00	대예배실	영양아루	오전 11:00	대모배관 101호
	2부 오전 9:00	대예배실	음치부	오전 11:00	대모배관 601호
	3부 오전 11:00	대예배실	전학년부	오전 9:00	대모배관 201호
	4부 오후 1:00	소예배실	재학년부	오전 11:00	대모배관 602호
수요기도회	(1부) 10:30	대예배실	교학년부	오전 11:00	대모배관 303호
	(2부) 7:30	온라인	참소년부	오전 11:00	대모배관 203호
새벽기도회	오전 5:30	소예배실			
블라싱(노차관)	오후 7:30	소예배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벰엘교회

☎ 61610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170번길 8(월산동)

■ 교 회 : (062) 367-1004 ■ 팩 스 : (062) 361-1004

■ 홈페이지 : www.kjbethel.kr ■ e-mail: kjbethel1979@hanmail.net